



노 90.4.20

눈물과 주먹과 반미출정가

— 피코 노동자들의 도미 출정식 —

4월 11일 오후 6시. 1년여의 공장휴업으로 폐허가 된 한국피코(부천시 삼정동)에는 공장마당을 다 채우고 담벼락 오상까지 올라간 한국피코, 수미다, 아세아스와니, TND 그리고 부천지역 노동자 학생 5백여명이 모여 다음날 미국으로 떠나는 유점순(36) 홍성예(46) 장영효(28)씨 등 출정식을 갖고 있었다.

국회, 미대사관, 미상공회의소, 평민당 농성등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투쟁은 다 해봤지만 서울 시내 안가본 경찰서가 없을 정도로 매맞고 끌려다니면서 '어느 나라 사람을 위한 법이고 정부인가'를 깨닫고 마지막 방법으로

미국으로 떠난다는 투쟁경과보고를 할 때 5백여 노동자들은 눈물을 감추려 이를 악물고 있었다.

"미국인에게 짓밟혀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더 이상 피코의 아픔을 후손에게 남겨줄 수 없다는 자존심으로 오랜 싸움을 끌어왔습니다. 끊임없는 분열공작으로 조합원 내에 분열이 있을 때 너무 너무 힘들었지만, '꼭 이겨야 한다'며 말이 아닌 진실한 행동으로 도와준 지역노동자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됐습니다"

14개월간 울고 울어 눈물샘이 다 마르지 않았나 싶지만 "왜 동지들 주머니 돈을 털어가며, 사

랑하는 남편과 애들, 동지들과 떠나야 하는지를 생각하니 눈물을 감출 수 없어요"라며 유위원장은 계속 울먹거린다.

이날 출정식의 절정은 환경석 부노협 의장, 장진수 부천금속사무소 위원장 등이 3투사에게 태극기를 걸어줄 때. 공장 옥상에서는 폭죽이 펄펄 터지며 노동자들의 투쟁의 함성은 반미출정가 돼 울려 퍼졌다.

"이길 수 있는 싸움이나"는 질문에 단 한마디 "네"라고 대답하고 단돈 1백만원을 들고 떠난 피코 아줌마들은 반드시 승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한다.

(윤지환 기자)